



INJE
여론

■ 과외수업

신종플루, 최선의 경우를 희망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자

이광봉 / 국제경제학부·교수



지난 6월 11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Pandemic(대유행)을 선언한 신종 H1N1 인플루엔자는 이후 확진환자수의 집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촌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속도는 1957년에 경험하였던 아시아독감 Pandemic의 경우보다 적어도 4~5 배 빠른 것으로 그야말로 초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 WHO에서 갱신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10월 18일 현재 전 세계 160여개 나라에서 확진환자는 414,945명, 사망자는 4,99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실제 상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의 CDC(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에서는 미국에서만 이미 백만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면에 병독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외관상 계절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정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위생, 영양,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인구, 개선된 약제, 긴밀한 글로벌 대응체계, 바이러스의 전염속도와 병독성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해관계 등은 과거에 발생한 Pandemic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CFR(Case Fatality Ratio, 감염자 치사율)을 예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실보다 낙관적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최근 북반구에서는 건조하고 쌀쌀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감염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즉 신종플루의 활동이 우호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추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00명 이상이 감염되어 10월에 발생한 감염자가 이제까지 발생한 전체감염자의 60%를 초과하고 있고 현재까지 35명의 국내사망자 가운데 10월에만 20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제시한 WHO의 최근 통계를 감안하면 신종플루 CFR은 1.2% 정도로서 0.1~0.2% 정도로 파악되는 계절 인플루엔자 CFR에 비하여 적어도 5~10 배 수준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종 바이러스가 이미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류독감 등 체내에 기생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또는 희망하고 있으나 신종 바이러스는 이러한 Reassortment(재배열) 과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병독성이나 중증도가 훨씬 높은 변종으로 변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신종플루는 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하고 증상발현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탁월한 인체침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청년층, 임산부, 비만층 등에 대한 Attack Rate(감염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난 세기 최악의 Pandemic으로 평가되는 1918년 스페인독감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공격은 바이러스의 첫 발생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2차 Wave(장결) 기간이었다는 점도 현 상황과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일상적인 진료 상황에 대비한 설비와 재고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30년에서 50년의 부정확한 주기로 발생하는 Pandemic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다수의 중증환자가 한꺼번에 병원 시설에 쇄도하는 경우 ICU나 호흡보조기 등 치료에 필수적인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사망자의 숫자도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감염률, RO(Reproductive Number, 대인 전염률), CFR, 백신/치료법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추정은 데이터, 분석기간, 분

석방법 등에 따라 그 결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MF, CBO, Brookings 연구소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과거 Pandemic의 경험을 근거로 강도가 상이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글로벌 GDP의 1%에서 10%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GDP가 대략 US\$60 Trillion 정도이므로 신종플루의 경제적 영향은 그 강도에 따라 원화로 700조원에서 7,000조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질병치료나 사망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지출은 전체 손실의 12% 정도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정적인 손실은 Pandemic에 대처하기 위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예방조치가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즉 사람들이 감염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혼잡한 장소를 회피하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제활동의 수준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전체손실의 60% 정도에 해당된다. 수요가 줄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관광, 여행, 운송, 식당, 호텔, 예술, 영화, 공연, 스포츠, 컨퍼런스, 쇼핑, 학원, 학교 등으로서 주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나 이벤트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는 현상과 중

동의 하지 등 성지순례마져도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감염, 감염가족의 간호, 휴교조치에 따른 자녀 보호, 직장에서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발적인 결근 등에 따른 결근을 증가 또는 거래회사의 공급망이나 재고관리체계의 혼란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공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나머지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적 백신을 제공하는 보험산업은 급증하는 mortality와 morbidity로 인하여 그 총액의 강도가 더욱 클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 발생한 이번 신종플루는 탁월한 인체침투잠재력과 변신을 위한 학습태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적인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경우를 희망하고 또 거기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도달하는 곳은 결국 거기 있어야 마땅한 곳, 즉 받아야 마땅한 대접만을 받게 마련이다.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신종플루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기자들의 막무가내 인터뷰

내가 생각하는
교내식당은?



저는 교내식당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학생이기에 용돈도 부족한데다가 식사를 개인적으로 차려 먹을 수도 없는 사정하기에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양도 적당한 교내식당이 저와 같은 학우들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교내식당 중에서 주로 A동 식당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타 교내식당보다 밝은 분위기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친근하게 대해주시니 갈 때마다 부담없고 편하게 느껴져요. 물론 식권 값이 올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맛과 영양도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이대민 / 시스템경영·04



교내식당은 학생들에게 부담가지 않는 적절한 가격과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도 앉아서 쉬어갈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의 약속 장소로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상 저는 교내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교내식당을 이용할 때에 가격이 저렴한 점은 좋지만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마다 국이 심겁다거나 반찬의 양이 적어 후회한 적이 많거든요. 물론 맛과 양 모두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한 끼를 제공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조금 더 다양하고 색다른 메뉴 그리고 전체적인 교내식당 음식의 맛과 질을 개선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전병관 / 의예과·08



우리가 알고 있는 교내식당의 장점은 가깝고 가격이 싸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내식당의 가격이 올라서 이 장점들 중 하나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보여요. 교내식당은 교내식당답게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을 낮추면 식당 운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우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부담도 어느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학우들을 위해 교내식당처럼 필수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야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하고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교내 식당 메뉴에 따라 학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조사하여 식단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신행 / 특수교육학과·08